



#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2(24-8) | 2024. 8. 1

러-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에 대한 소고  
권영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박동순

'시니어 ARMY' 구축 방안에 대한 제언  
이종섭

## 러-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에 대한 소고

권영태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개발연구소 이사)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국제 관계와 안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가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간과할 때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 국가안보 : 기초와 대들보가 없으면 집이 무너진다

국가안보는 한 국가의 생존과 주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마치 건축물에서 기초와 대들보가 건물을 지탱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듯이,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곧, 국가안보는 인간안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안보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때, 비로소 내부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국가 안보가 침해될 때 인간안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으며,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는 국가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안보 역시 보장될 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국가안보의 취약성이 어떻게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 인간안보 : 인테리어도 중요하다

물론 인간안보 역시 중요하다. 인간안보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 건강, 교육, 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안보가 제공하는 기초 위에 구축되는 인테리어와도 같다. 인간안보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고 보는 일각의 태도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집의 기초나 대들보가 흔들리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인테리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인간안보를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이는 국가안보가 확고하게 유지된 덕분이었다. 우리가 인간안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국가 전체의 역량도 강화된다. 건강한 국민, 잘 교육받은 국민,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국민이 있을 때, 그 국가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인간안보의 성과는 국가안보가 튼튼히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가 불안정하면, 인간안보 역시 흔들리기 쉽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와 현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과제

한국은 독재 시절,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가안보를 경시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시의 희생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으며, 북한의 위협은 상존한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안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자유, 그리고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경제 기적을 이룬 것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안보가 뒷받침된 결과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 국제적 사례와 교훈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조화를 이루는 사례는 많다. 스위스는 오랜 중립국 정책을 통해 국가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인간안보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위스는 강력한 군사적 중립과 외교적 중립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스라엘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강력한 국가안보 정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과 혁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병행적 발전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다.

## 러-우 전쟁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는 국가안보의 중요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만든 사건이다. 국가안보가 없으면 인간안보도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건축물의 기초와 대들보로, 인간안보를 그 위에 세워진 인테리어로 비유할 수 있다. 국가안보가 튼튼하게 유지될 때, 인간안보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겐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책무이다.

인간안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진전되면서 양자를 등가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널리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국가안보를 논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인식하는 견해도 눈에 띈다. 그렇지만 양자는 국가안보를 뿌리로 하여 인간안보라는 꽃을 피우는 관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사실 원래,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국가안보는 인간안보, 곧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일부 독재 시절의 왜곡된 국가안보 때문에 양자의 관계에 대한 착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화된 이후 국가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라는 수식어를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민주화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증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를 가진 선진민주 국가에서 사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이분화 하는 관점은 어찌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를 존중하는 전제 위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안보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균형을 이루며 발

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안보는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든든한 기초이며, 인간안보는 그 위에서 꽃피우는 아름다운 열매이다.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양자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필수적이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이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박 동 순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성대학교 교수,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 ‘쓰레기 풍선’

북한은 2024년 초부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가로 선언했다. 그리고 ‘쓰레기 풍선’이라는 저급하고 유치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최초로 휴전선 접경 지역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약 260여개의 대형 풍선을 날려 보냈다. 풍선의 크기는 약 3~4m의 지름에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바람을 이용했으며, 공중에서 터뜨리기 위한 자폭 장치로 타이머가 부착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서해 연평, 강화, 인천 해상과 파주 지역에서 GPS(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공격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다.

북한은 2차로 6월 1일에, 약 72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그리고 난 후, 국방성 담화를 통해 쓰레기 살포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추후 대북전단이 다시 발견되면 재개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했다. 또한 “널려진 휴지장 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비아냥댔다.

대한민국 정부는 6월 4일,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저급한 도발인 ‘쓰레기 풍선’ 살포의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전부터 도발을 자행해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으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인내하며 합의를 준수해 왔으나 더 이상 일방적 합의의 제약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군은 6월 9일,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발송을 재개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탈북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자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총 일곱 번의 ‘쓰레기 풍선’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와 서울시 등지로 살포했다. 7월 18일에는 북한지역에 대북전단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여덟 번째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



했다. 이에 우리 군은 그동안 자제해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했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다.

### 북한 ‘쓰레기 풍선’의 실체와 인식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에는 종이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분노 등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대북 지원된 넥타이, 청재킷 등을 가위나 칼로 심하게 훼손해 한국산 물품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일부 페트병은 라벨이나 병뚜껑을 제거해 북한의 상품 정보를 숨기려는 노력도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기워신은 양말이나 구멍 뚫린 유아복, 옷감으로 만든 마스크 등이 포함되어 열악한 경제 실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북한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문건의 표지들이 풍선에 담기기도 했다. 북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등 김정일과 김정은 교시를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의 중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쓰레기 풍선 살포에 북한 주민들이 긴급히 동원됨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리적·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동시에 GPS 교란 등을 병행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그동안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면서 병행한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서해 여객선과 어선의 GPS가 오작동하는 피해가 있었다. 2차 살포 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 미상의 풍선이 확인되어 항공기 60여대가 정시 이·착륙을 하지 못하거나 회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을 초래 했다. 또한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4차 살포 시에는 춘천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0여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날려 보내고 있는 ‘쓰레기 풍선’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요, 테러행위다. 과거의 도발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했다면, 이번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국민들에게 짜증과 불편을 유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재래식 테러로 보아야 한다.

###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북한은 이른바 ‘쓰레기 풍선’이라는 새로운 대남 도발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 화생방 물질이나 폭발물 등이 포함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합참을 중심으로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통해 대남 비행물체를 조기에 식별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는 즉시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 등을 출동시켜 수거 조치하고

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및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대응조치반을 비상대비상황실에 개소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바람을 이용한 비행 풍선의 활용은 오래됐다.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만든 열기구인 사람을 태우고 약 9km까지 날아간 것으로 기록됐다. 열気구는 전쟁 중 낮은 고도에서 상대방을 정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의 역할로 쓰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풍선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해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제트 기류가 동쪽으로만 흐르는데 겨울에는 매우 빨라진다는 원리에 착안해 ‘풍선폭탄’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실제 일본에서 고도 9,100m 이상으로 기구를 띄워 보내면 고공 제트 기류를 타고 미국까지 8,000km 거리를 3일 만에 이동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최근인 2023년 2월, 미국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되어 큰 문제가 됐다. 전자정비가 탑재된 이 풍선은 미국의 핵미사일 격납고가 위치한 맘스트롬 공군기지 주변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공군은 F-22를 출격시켜 이 풍선을 격추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이 사건을 지목하면서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초음속 폭격기가 흔해진 현대의 상황에서도 풍선은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풍선을 활용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기상 조건과 지리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풍선에다가 간단한 에너지원과 프로펠러만 장착해도 군사 정찰용 드론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기습 공격한 수단인 ‘저차원적 기술(Low-Tech)’의 전형이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사건은 단순히 지저분한 오물을 투하해 우리 국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미 과거부터 축적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쪽으로의 풍향과 풍속을 예측해 우리를 향해 오물 풍선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군사 기술적, 국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시니어 ARMY” 구축 방안에 대한 제언

이 종 섭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최근 북한의 많은 변화에 우리의 대응은 잘 대응하고 있는지 조바심이 나는 이유는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작년 10월 7일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세계 리더 국가인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등등 세계의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했다. 무려 24년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홀로 푸틴을 영접했다. 양국 국가 연주나 예포 발사는 물론 그 흔한 환영 인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러시아 회담 이후 270여 일 만에 평양에서 재회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자 1면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패의 조로친선',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인 부짚(푸틴) 동지를 최대의 국민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보도했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의 만남을 "조로(북러) 친선의 전면적 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치켜세웠다. 언제부터 푸틴이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탄약과 미사일 등 전쟁 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제공하는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원한다. 그리고 푸틴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사 역시 양측의 군사협력 수준이다.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과연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활용한 도발을 해오고 대한민국은 확성기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서로 격한 상황으로 치달을 분쟁 위기감을 높이고 있는 이 시기에 향군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시니어 ARMY”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1. 서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퇴역 군인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군의 미래 전략으로 '시니어 ARMY'를 제안한다. 시니어 ARMY는 퇴역 군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2. 목 표

가. 퇴역 군인의 재능 및 경험을 사회에 환원

나. 퇴역 군인의 재취업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다. 퇴역 군인을 활용한 국가적 재난 및 긴급 상황 시 대응 능력 강화

## 3. 전략 요소

가. 조직 구성

### (1) 총괄 본부

- 역할 : 시니어 ARMY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 및 운영 관리

- 구성 : 퇴역 군인, 전문가, 행정 인력

### (2) 지부

- 역할 : 지역별 프로그램 실시 및 관리

- 구성 : 지역 퇴역 군인, 행정 인력, 자원봉사자

나. 프로그램 개발

### (1)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컴퓨터 및 IT 기술 교육

- 재난 구조 및 응급처치 훈련

- 심리 상담 및 멘토링 교육 등

### (2) 사회참여 프로그램

- 지역사회 봉사활동

- 공공기관 및 학교 연계 자원봉사

- 청소년 멘토링 및 상담 프로그램 등

다. 채용 및 재배치

### (1) 산업체 및 공공기관 연계

- 퇴역 군인의 재취업 기회 마련

- 고용주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 (2) 비영리 단체 협력

- 비영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자원봉사 및 사회 참여 활동 강화 등

라. 건강 및 복지 지원

### (1) 의료 및 정신 건강 지원

- 정기 건강 검진 프로그램

- 심리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 (2) 사회복지 프로그램

- 정기적인 모임 및 소셜 활동 지원

- 복지 혜택 안내 및 지원

## 마. 홍보 및 마케팅

### (1) 홍보 전략

- 대중매체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

### (2) 커뮤니티 활동

-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 시니어 ARMY의 사회적 가치 및 역할 홍보

## 4. 실행 방안

### 가.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 특정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 검증
- 참가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 나. 정기 평가 및 모니터링

- 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 다. 재정 확보 및 관리

- 정부 및 민간단체의 후원 유치
- 예산 관리 및 투명한 재정 운영

## 5. 결 론

시니어 ARMY 프로그램은 퇴역 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향군의 “시니어 ARMY”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요건과 방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군 시니어 세대의 특성 및 니즈 파악이 되어야 한다. 즉, 퇴역 군인 및 배우자들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 수준 등 기본 현황 분석을 통해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TF가 필요하다. 시니어 ARMY 세대의 생활, 건강, 여가, 사회공헌 등 다양한 관심사와 요구사항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시니어 ARMY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건강관리, 일자리 및 경제활동, 문화/여가, 평생학습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 수립을 전략적으로 단계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향군 구성원들의 개인별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니어 ARMY 세대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향군 시니어 ARMY 분야 전문 인력 및 조직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 전담 인력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니어 부문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도록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 및 인프라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및 민간 자원 발굴과 다양한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위탁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할 사업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향군 내 시니어 ARMY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초기에 많은 투자가 되면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재조정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가 증진되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